

[인터넷]

2017/11/24

Q. 미국 FCC 망 중립성 폐지 행보가 미치는 영향은?

A. 단기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듯

인터넷/게임/미디어
김민정
(2122-9180)
mjkim@hi-ib.com

■ 망중립성 폐지안 통과될 가능성 높아

미국 FCC 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망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'망중립성 원칙'을 폐기할 계획을 밝혔다. 망 중립성 준수를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는 망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. 망중립성 폐지안은 12 월 14 일 위원회에서 5 명의 위원이 투표하게 되는데 공화당 3 명, 민주당 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3 : 2 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. 망중립성 폐지가 확정될 경우 ICT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.

■ 통신사업자에게는 긍정적, 인터넷사업자에게는 부정적

망중립성 폐지안이 발표되자 AT&T 등의 망 사업자는 반기고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업자는 망 사용료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다. 반면에 구글, 페이스북, 넷플리스 등의 거대 인터넷사업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 더불어 미디어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자회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넷플릭스나 슬링 TV 와 같은 경쟁사의 서비스 품질은 저하시킬 수 있다. 즉, 통신사는 망중립성 폐지를 자사의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■ 인터넷 업종의 양극화 현상 더욱 심화될 수 있어

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오히려 망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대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. 중소형 콘텐츠 사업자나 스타트업들은 망 사용료를 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 위주의 독과점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.

■ 단기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미국에서 망중립성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. 하지만 통신사는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명분으로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상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.

Q & A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 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김민정)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 등급)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 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(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)

- Buy(매수): 추천일 종가대비 +15%이상
- Hold(보유): 추천일 종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- Sell(매도): 추천일 종가대비 -15%이상
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(중립), - Underweight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-09-30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(%)	88.3 %	11.7 %	-